

# 東醫寶鑑에 나타난 老人病症과 老人生理의 연계성 연구

박종운 · 임채광 ·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Study on Connection between Physiology of Old People and Pathological Symptom in Dongeuibogam

Jong Woon Park, Chae Kwang Im, Kwang Joong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In this paper, to find out how different the treatment of special individuals named 'old people' is with that of ordinary cases, Dongeuibogam(東醫寶鑑) was chosen as the study material and some parts in it where the symptoms of old people in the same disease category were treated in different ways were excerpted to analyze the tendency of pathological symptoms and prescriptions in the physiological perspective.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parts in Dongeuibogam(東醫寶鑑) where the old people were treated in different ways, it turned out that 65 prescriptions were used in 24 pathological symptoms. The 24 symptoms are included mainly in chapters of 'inner view(內景)' and 'outer form(外形)'. They are including the pathological symptoms which had been presented as general geriatric symptoms and also seems to have added other symptoms which should be clinically reflected in the specialty of treatment for geriatric diseases. The 65 prescriptions are also recorded mainly in chapters of 'inner view(內景)' and 'outer form(外形)'. The herbs used for them were sweet and warm herbs such as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熟地黃), *Angelica gigas* Nakai(當歸), *Panax ginseng* C. A. Mey(人蔘) and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白朮) that can support the essence blood of liver and kidney and the energy of spleen, lung and stomach. Those herbs could be added or subtracted according to the symptom. It seems to have resulted from the treatment method that old people was applied to old people in consideration of their physiological features. When the 24 symptoms and 65 prescriptions for geriatric diseases different from ordinary ones in Dongeuibogam(東醫寶鑑) were considered in the physiological view point, it could be seen that each pathological symptom was manifested as a exhaustion of kidney qi(腎氣枯渴) which was a characteristic physiologic state of old people. Through this, it could be seen that the use of prescriptions was also made to mitigate the body fluid deficiency(津液不足), the kidney yin inner heat(腎陰內熱), the heart spirit void and loss(心神虛損), the kidney yang deficiency(腎陽不足), the spleen failing in transportation(脾失健運), the spleen yang deficiency(脾陽不足), the liver fire inner movement(肝火內動) and the lung energy void and loss(肺氣虛寒).

Key words : Old People(老人), Physiology of Old People(老人生理), Dongeuibogam(東醫寶鑑)

### 서론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세계의 老人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老人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 77세, 2020년에는 81.0세, 2030

년에는 81.9세로 늘어나 2026년에는 老人인구의 비율이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이러한 추세를 따라 老化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老化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sup>2)</sup>.

\* 교신저자 : 김광중,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j@dhu.ac.kr, · Tel : 053-770-2238

· 접수 : 2011/10/05 · 수정 : 2012/01/11 · 채택 : 2012/01/20

1) 김기분 외. 노인질환관리. 서울, 현문사, p 13, 2006.

2) 김은기, 성우용, 송경섭. 老化防止를 위한 韓醫學의 方法. 대한한방성인병학회지 2(1):146, 1996.

이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내리자면 老化는 ‘나이가 들어 생물의 성질이나 기능이 쇠퇴함’ 또는 ‘사람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老人性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sup>3)</sup>. 4)은 “老化란 생명체의 성장과 동시에 시간경과에 따른 연속적인 현상으로 생물학적 과정인 점진적이고 내적인 퇴행성 변화로,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초래되어 외부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예비력과 적응력이 저하되어 형태적, 기능적으로 퇴축되어 생명력이 감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노인간호학<sup>5)</sup>에서는 “老化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기체의 정상적인 변화로서 생명력이 있는 모든 유기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초래한다. 즉 老化란 어떤 연대기적 이정표에 다다랐을 때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며 예측이 가능한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행동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老化에 대한 정의를 廣義와 狹義의 老化로 나누어 설명하면 廣義의 老化(aging)는 생명체가 수태된 순간부터 사망까지 배아, 성숙, 성년기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狹義의 老化(aging, senescence)는 성숙한 다음부터 시간이 갈수록 생리적 기능은 감소하는 반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은 증가하는 등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의 감소 현상이 동반되어 사망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즉 老化의 과정은 生長壯老死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個體의 시간적인 차이성은 그 個體의 현재 상태와 앓을 수 있는 질병과 앓고 있는 疾病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 그 個體의 生理상태와 발생하는 疾病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므로 老人이라는 個體의 生理 상태는 病症의 발현 양상에도 영향을 미쳐 소아나 청장년층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나며, 동일한 病症이라도 治法 또한 당연히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의학 분야에서의 老人에 관한 研究를 살펴보면, 老人保健 또는 老人養生에 관한 研究<sup>8)9)10)11)12)</sup>와 老人病症治療에 관한 研究<sup>13)14)15)</sup>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老人病症 治療에 관

한 研究를 살펴보면 단일한 老人性 질환의 治療에 대해 考察한 研究가 대부분이며 老人이라는 특수한 個體의 治療가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研究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는 東醫寶鑑에 나타난 老人病症이 담고 있는 이론 기반을 찾기 위해 東醫寶鑑 老人病症 治療내용을 발췌하여 東醫寶鑑 老人生理내용과의 연계성에 대해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 본 론

### 1. 東醫寶鑑에 나타난 老人生理, 病症 및 治法의 특징

#### 1) 老人生理의 특징

東醫寶鑑에서는 身形門에서 『素問』과 『靈樞』를 인용하여 老化의 과정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年老無子<sup>16)</sup>의 條文에서 『素問』 「上古天真論」을 인용하고 人氣盛衰<sup>17)</sup>의 條文에서 『靈樞』 「天年篇」과 『素問』 「陰陽應象大論」을 인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年老無子の 條文에서는 男女에 따른 加齡에 의한 成長과 老化의 과정을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女子는 七의 배수로 成長과 老化의 과정이 진행되며 男子는 八의 배수로 成長과 老化의 과정이 진행되는 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腎이라 하고 있다. 腎氣가 차오르면서 成長이 이루어지고 腎氣가 충만해지면 成長이 極에 달하며, 腎氣가 衰弱해지면서 老化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生長壯老死라는 과정을 男女를 나누어 記述하고 老化를 生體에 있어서 쇠퇴의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또한 加齡的 변화를 주로 하여 이를 생식능력의 측면에서는 女子의 성장 및 성숙이 男子보다 빠른 것, 생식능력에 관련된 腎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sup>18)</sup>, 외형면에서는 女子는 面焦, 髮墮, 月經有無, 男子는 面焦, 髮鬢白, 筋不能動, 精少, 齒髮去로 老化를 정의<sup>19)</sup>하였다. 그리고 腎은 水를 主管하고 五臟六腑의 精氣를 받아 저장하는

학연구소논문집 4, 1995.

3) 전국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改訂版 東醫生理學. 파주시, 集文堂, p.481, 2008.  
 4) 안상원. 숙지황과 육미지황탕이 노화과정 흰 쥐에서의 항산화 기전에 미치는 영향. 大田大 博士論文, p.78, 1999.  
 5) 윤혜상. 노인간호학. 서울, 청구문화사, p.9, 2006.  
 6) 권인순. 노화의 정의 및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50(3):208, 2007.  
 7) 백상룡. 老化에 대한 研究(黃帝內經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2(2):177, 1999.  
 8) 박금화, 최연희, 남철현.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한 건강 만족도와 관련 영향 요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2(3), 2008.  
 9) 윤철호. 『노노항언(老老恒言)』에 나타난 노인의 소화기 계통 양생법(1)-비위기(脾胃器)계통의 양생법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 2010.  
 10) 이강호, 금동호, 이명중. 氣功을 통한 老人保健의 研究.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1(1), 2001.  
 11) 이화. 노인보건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大田大 博士論文, 2001.  
 12) 정채빈. 老人健康에 對한 東西醫學的 比較 考察. 圓光大 碩士論文, 1999.  
 13) 하계원 외. 노인 증양의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학회지 9(1), 2003.  
 14) 송미령, 윤창렬. 노인치매의 治療에 關한 韓醫學的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6(1), 1997.  
 15) 박익훈, 김중대, 정지천. 老人 低血壓에 對한 文獻의 考察. 동국한의

16) 허준 저,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신원·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p.200, 2005. “素問曰 黃帝曰 人年老而無子者 材力盡耶 將天數然也 岐伯對曰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 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 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六七 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 腎氣平均 筋骨勁強 故眞牙生而長極 四八 筋骨隆盛 肌肉滿壯 五八 腎氣衰 髮墮齒枯 六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斑白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臟盛乃能瀉 今五臟皆衰 筋骨解墮 天癸盡矣 故髮鬢白 身體重 行步不正而無子耳”(內景篇 卷一 身形門 年老無子)  
 17) 上揭書, p.199. “靈樞經曰 黃帝問氣之盛衰 岐伯對曰 人生十歲 五臟始定 血氣始通 眞氣在下 故好走 二十歲 血氣始盛 肌肉方長 故好趨 三十歲 五臟大定 肌肉堅固 血脈盛滿 故好步 四十歲 五臟六腑十二經脈皆太盛以平定 腠理始疏 榮華頽落 髮鬢斑白 氣血平盛而不搖 故好坐 五十歲 肝氣始衰 肝葉始薄 膽汁始減 故目視不明 六十歲 心氣始衰 善憂悲 血氣解墮 故好臥 七十歲 脾氣虛 故皮膚枯 八十歲 肺氣衰 魄離 故言善誤 九十歲 腎氣焦 四藏經脈空虛 百歲 五臟皆虛 神氣乃去 形骸獨居而終矣” “素問曰 人年四十 陰氣自半也 起居衰矣 年五十 體重耳目不聰明矣 年六十 陰痿氣太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泣俱出矣”(內景篇 卷一 身形門 人氣盛衰)  
 18) 石山淳一. 중의학의 노화개념. 의림 184:21, 1988.  
 19) 김은기, 성우용, 송경섭. 前揭書, p 147.

데<sup>20)</sup> 五臟이 모두 衰하여 精氣를 腎에 공급하지 못하니 腎氣 또 한 衰弱해져서 생식능력을 잃게 되는 것을 老化的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人氣盛衰의 條文을 살펴보면 十歲를 단위로 하여 五臟이 衰함에 따른 老化的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즉, 四十歲에는 膜理가 성글어지고 鬚髮이 희어지기 시작하며, 五十歲부터 肝이 衰함을 시작으로 하여 老化的 과정이 10세 단위로 心, 脾, 肺, 腎이 순서대로 衰하여 百歲가 되면 五臟이 모두 衰하게 되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四十歲 이후의 老化的 과정은 上實下虛로 인한 것이므로 下焦에 속하는 肝腎의 陰精이 虛해짐에 따라 귀와 눈이 어두워지고 陰痿와 같은 생식기능의 쇠퇴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老化的 과정은 五臟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지만 六腑 중에서도 유일하게 膽이 肝과 더불어 老化的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難經에서 말하기를 心臟은 精汁을 3홉 담고 있고, 脾臟에는 散膏가 半斤이 붙어 있으며, 膽은 精汁을 3홉 담고 있다.”<sup>22)</sup>라고 하였고, 또한 “肝의 남은 氣가 膽으로 넘쳐 들어가 모여서 精汁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안으로는 精汁을 저장하여 새지 않게 하고, 밖으로는 사물이 비치어 밝으므로 淸淨之腑가 되어 능히 눈과 통할 수 있다.”<sup>23)</sup>라고 하였다. 즉, 膽은 肝과 表裏를 이루는 腑이지만 奇恒之府에 속하여 六腑의 본래 기능인 水穀을 소화시키고 糟粕을 전도하는 기능<sup>24)</sup>이 아닌 肝의 精氣를 精汁의 형태로 저장하고 배설하는 臟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肝의 精氣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老化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人體의 老化的는 대략 四十歲부터 시작되어 五臟의 精氣가 衰함을 따라 外形의 변화가 나타나고 生殖機能을 비롯한 人體의 각종 生理的 기능이 衰退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老人의 生理 상태는 五臟의 精氣가 衰하여 臟腑의 生理 기능이 저하되고, 그와 연관된 五官, 五體의 生理 기능 또한 저하된 상태로 이는 궁극적으로 腎에 精氣를 공급하지 못하여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 2) 老人病症의 특징

老人은 五臟의 精氣가 衰하여 腎氣가 고갈되어 있는 生理的 상태로 인해 精血이 원활히 化生되지 못하고 부족해지며, 이로 인해 각종 老人病症이 나타나게 된다. 老人病症은 內景篇 身形門의 老因血衰<sup>25)</sup>의 條文에 나타나 있는데, 老因血衰의 條文에서는

老化的로 인해 나타나는 病症의 大綱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老因血衰의 條文에서는 여러 가지 老人病症 중에서 眼耳鼻口의 七竅와 前後陰을 포함한 九竅에서 나타나는 病症과 睡眠의 이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靈樞에서 말하기를, ‘五臟은 항상 七竅와 통해 있다. 그러므로 肺氣는 코로 통하여 肺氣가 조화로우면 코가 냄새를 알 수 있다. . . . 五臟이 조화롭지 못하면 七竅가 통하지 않게 되고, 六腑가 조화롭지 못하면 氣血이 鬱滯되어 癰이 된다’라고 하였다.”<sup>26)</sup>라고 하여 五臟精氣의 조화여부가 七竅(또는 九竅) 기능의 정상여부로서 발현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靈樞에서에서 말하기를, ‘코는 肺의 기관이다. 肺가 병이 들면 . . . 귀는 腎의 기관이다. 腎이 병이 들면 광대뼈와 미간이 검게 되고 귀가 마른다’라고 하였다.”<sup>27)</sup>라고 하여 五臟에 병이 생기면 이는 七竅(또는 九竅)의 病症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老因血衰의 條文에서 精血이 부족해짐을 老化的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病症으로 九竅의 이상을 말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五臟의 精氣가 衰하고 이로 인해 精血이 고갈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病症 중에서 五臟의 精氣상태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九竅의 病症으로서 老人病症을 총괄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老人은 낮에는 잠이 많아 졸리고, 밤에는 정신이 맑아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黃帝가 묻기를 ‘老人은 밤에 자지 못하고, 젊은이는 낮에 자지 못하는 것은 무슨 기운으로 인한 것입니까?’하고 물었다. . . . 그러므로 낮에는 정신이 맑지 않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28)</sup>라고 말하고 있다. 즉, 老人의 睡眠 이상은 氣血이 衰弱함으로 인해 肌肉이 마르고 氣의 순행이 不利해져 五臟의 기능이 失調되고 營氣와 衛氣가 衰하여 나타나는 증상임을 알 수 있다.

## 3) 老人治法の 특징

老人病症에 대한 處方과 治法은 老人治病<sup>29)</sup>의 條文에 나타나 있으며, 老人治病의 條文에서는 그 大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用藥과 治法上의 주의점에 대해 밝히고

淫 內當萬慮 晝夜無停 年老精血俱耗 平居七竅反常 啼哭無淚 笑反有淚 鼻多濁涕 耳作蟬鳴 喫食口乾 寐則涎溢 溲尿自遺 便燥或泄 晝則多睡 夜臥惺惺不眠 此老人之病也”(內景篇 卷一 身形門 老因血衰)

26) 上揭書, p.544. “靈樞曰 五藏常內關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香臭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 五藏不和則七竅七一作九不通 六府不和則留結爲癰”(內景篇 卷三 五臟門 五臟通七竅)

27) 上揭書, pp.544-545. “靈樞曰 鼻者 肺之官也 肺病則喘息鼻張 目者 肝之官也 肝病者背青 口唇者 脾之官也 脾病者唇黃 舌者 心之官也 心病者舌卷短 顛赤 耳者 腎之官也 腎病者顛與顏黑 耳焦枯”(內景篇 卷三 五臟門 五臟有關)

28) 上揭書, p.432. “黃帝問曰 老人之不夜眠 少壯之不晝眠者 何氣使然 岐伯答曰 壯者之氣血盛 其肌肉滑 氣道通 榮衛之行 不失其常 故晝精而夜眠 老者之氣血衰 其肌肉枯 氣道澁 五藏之氣相搏 其榮氣衰少而衛氣內代 故晝不精而夜不眠”(內景篇 卷二 夢門 老少之睡不同)

29) 上揭書, p.238. “年老之人 雖有外感 切忌苦寒藥及大汗吐下 宜以平和之藥調治” “老人覺小水短少 即是病進 宜服却病延壽湯 病後虛弱 宜增損白朮散 小便頻數者 腎氣丸 去澤瀉 加茯神 益智 大便乾燥者 宜疏風順氣丸 蘇麻粥 痰病 宜六君子湯 三子養親湯 潤下丸 二賢散”(內景篇 卷一身形門 老人治病)

20) 허준 저,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前揭書, p. 246. “內經曰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註云 腎爲都會關司之所 非腎一藏獨有精也”(內景篇 卷一 精門 五藏皆有精)

21) 전국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前揭書, pp.482-483.

22) 허준 저,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前揭書, p.246. “難經曰 心盛精汁三合 脾有散膏半斤 膽盛精汁三合”(內景篇 卷一 精門 五藏皆有精)

23) 上揭書, p.600. “肝之餘氣 溢入於膽 聚而成精 由是內藏精而不泄 外視物而得明 爲淸淨之府 能通於眼目”(內景篇 卷三 膽腑 膽形象)

24) 권건혁 편집. 編輯 黃帝內經. 서울, 도서출판 반룡, p.31, 2000.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寫而不藏 此受五藏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 輸寫者也 所謂五藏者 藏精氣而不寫也 故滿而不能實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也”(素問 五藏別論)

25) 허준 저,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前揭書, p.238. “夫人兩腎中間 白膜之內 一點動氣, 大如筋頭 鼓舞變化 大闊周身 熏蒸三焦 消化水穀 外禦六

있다. 老人은 性味が 苦寒한 藥物과 汗吐下의 治法은 적합하지 않으니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무릇 질병이 있을 때는 환자가 본래부터 氣가 약하다면 마땅히 맛이 쓰고 성질이 찬 약은 빼고 人蔘 · 黃芪 · 甘草와 같은 약을 많이 가하여 火를 瀉하고 먼저 元氣를 補해야 한다.”<sup>30)</sup>라고 하여 苦寒한 藥物 대신에 人蔘 · 黃芪 · 甘草와 같은 甘溫하고 성질이 順한 藥物로 治療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땀을 많이 내면 陽氣를 잃고, 설사를 많이 시키면 陰氣를 잃는다. . . . 땀을 너무 많이 내면 氣를 상하고, 너무 많이 설사를 시키면 血을 상한다.”<sup>31)</sup>라고 하였고, “병세가 위급한 사람과 늙고 氣가 쇠한 사람은 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sup>32)</sup>라고 하여 汗吐下의 治法은 人體의 陰陽氣血을 손상시켜 生理의 陰陽氣血이 虛弱한 상태에 놓여 있는 老人에게는 적합한 治法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老人病症 治療의 원칙에 대해 말하기를 “무릇 질병이 생하는 것은 모두 外感과 內傷으로 인해 火와 濕이 생기고, 濕으로 인해 熱이 생기고, 火로 인해 痰이 생기는 등 네 가지 뿐이다. . . . 환자가 젊고 새로 생긴 병은 邪氣를 攻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환자가 늙고 오래된 병은 虛한 것을 補해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sup>33)</sup>라고 하여 病이 발생하는 원인을 外感과 內傷으로 인한 火, 濕, 濕으로 인한 熱, 火로 인한 痰의 네 가지로 나누고, 환자가 늙고 病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攻法과 補法을 반반씩 써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補虛를 우선해야 한다고 하여 攻法보다 補法을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補法을 우선하는 관점은 東醫寶鑑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연로하여 氣가 虛해지면 津液이 부족해져서 변비가 된다. 經에서 말하기를 ‘腎은 燥한 것을 싫어하니 급히 매운 것을 먹어서 적셔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말한 것이다.”<sup>34)</sup>라고 하였고, “老人은 膽汁이 부족하여 울 때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고 웃을 때 눈물이 나온다. 이는 火는 盛하고 水는 모자란 것이다. 그러므로 膽에 熱이 있어도 또한 눈물이 나온다.”<sup>35)</sup>라고 하였으며, “聖人이 비록 말하기를 ‘눈은 血을 얻어야 능히 볼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 . . 따라서 젊은 사람은 血이 지나친 경우가 많고 늙은이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sup>36)</sup>라고 하였다. 또한 “영덩이는 아래배의 뒤에 있고,

또한 아래에 있으므로 이는 陰中の 陰이다. . . . 만약 이를 평범하게 여기고 熱을 몰아내고 氣를 퍼주는 약만 쓴다면, 이는 虛한 것을 더욱 虛하게 하는 禍를 불러와 이는 손바닥을 가리키듯 명백하다.”<sup>37)</sup>라고 하였고, “癰疽일 때는 . . . 기름진 음식을 약간 가해주어 胃氣를 補해야 쉽게 아물 수 있다.”<sup>38)</sup>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老人病症은 汗吐下의 治法과 같이 五臟의 精氣를 훼손시킬 수 있는 治療法은 적합하지 않고, 성질이 順하고 甘溫한 藥物로 補法을 우선하여 治療하는 것이 원칙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小水短少의 症狀에는 却病延壽湯, 病後虛弱의 症狀에는 增損白朮散, 小便頻數의 症狀에는 腎氣丸, 去澤瀉, 加茯神, 益智, 大便乾燥의 症狀에는 疏風順氣丸 · 蘇麻粥, 痰病의 症狀에는 六君子湯 · 三子養親湯 潤下丸 二賢散의 處方을 大綱으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表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老人治病 條文에 나타난 老人病症 및 處方의 大綱

病症	處方
小水短少	却病延壽湯
病後虛弱	增損白朮散
小便頻數	腎氣丸, 去澤瀉, 加茯神, 益智
大便乾燥	疏風順氣丸
	蘇麻粥
痰病	六君子湯
	三子養親湯
	潤下丸
	二賢散

2. 東醫寶鑑에 나타난 老人病症 및 處方 분석

1) 老人病症 및 處方

東醫寶鑑 내의 各 病症에서 老人의 病症 治療를 따로 언급한 경우를 발췌하여 表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2, 3, 4와 같다.

Table 2. 老人의 治療를 달리한 病症 및 處方 (內景篇)

門	病症	處方
神	健忘 <sup>39)</sup>	加減固本丹
血	尿血 <sup>40)</sup>	六味地黃丸
言語	瘖不得語 <sup>41)</sup>	十全大補湯 去桂 加蒲瀉遠志
痰飲	痰飲通治藥 <sup>42)</sup>	竹瀝枳朮丸, 霞天膏
小便	老虛人癰閉 <sup>43)</sup>	四物湯 加黃芪 煎水 吞下滋腎丸 四物湯 加黃芪 人蔘 吞下滋腎丸 琥珀末 以人蔘 赤茯苓煎湯調
	轉脬證 <sup>44)</sup>	六味地黃丸 倍澤瀉
	小便不禁 <sup>45)</sup>	五子元, 家韭子元, 參芪湯
大便	莖中疼痛 <sup>46)</sup>	八味丸料 加車前子牛膝
	脾泄 <sup>47)</sup>	吳茱萸湯, 山楂枳朮丸
	腎泄 <sup>48)</sup>	豬藏丸
	老人秘結 <sup>49)</sup>	疏風順氣丸, 小皂角元, 二仁元, 橘杏丸, 黃芪湯, 膠蜜湯, 蘇麻粥, 三仁粥
	大便不通 <sup>50)</sup>	半硫丸, 潤腸丸, 潤腸湯

30) 上揭書, p.1680. “凡疾病 量人素氣弱者 當去苦寒之藥 多加人蔘 黃芪 甘草之類 瀉火而先補元氣”(雜病篇 卷一 用藥門 勿傷胃氣)  
 31) 上揭書, p.1671. “汗多亡陽, 下多亡陰 不當汗而妄汗之 奪其津液 枯槁而死 不當下而強下之 令人開腸洞泄 便尿不禁而死 大汗傷氣 大下傷血”(雜病篇 卷一 用藥門 汗下之戒)  
 32) 上揭書, p.1700. “病勢危劇 老弱氣衰者 不可吐”(雜病篇 卷一 吐門 不可吐證)  
 33) 上揭書, p.1662. “夫疾病之生也 皆因外感內傷 生火生濕 濕而生熱 火而生痰 四者而已 審其爲少壯新病 是濕則燥之 是火則瀉之 是濕而生熱則燥濕而兼清熱 是火而生痰則瀉火而兼豁痰 無餘蘊矣 審其爲老衰久病 又當半攻半補焉 故曰 少壯新病 攻邪爲主 老衰久疾 補虛爲先”(雜病篇 卷一 用藥門 形氣用補焉)  
 34) 上揭書, p.844 “又有年老氣虛 津液不足而結者 經曰 腎惡燥 急食辛以潤之者 是也”(內景篇 卷四 大便門 大便秘結)  
 35) 上揭書, p.486. “老人膽汁極 哭則無淚 笑則有淚 火盛水虧也 故膽熱者亦流淚”(內景篇 卷二 津液門 泣)  
 36) 上揭書, p.1006. “聖人雖言目得血而能視 然血亦有太過不及也 太過則目壅塞而發痛 不及則目耗竭而失明 故年少之人太多太過 年老之人多不及 不可不察也”(外形篇 卷一 眼門 眼病當分表裏虛實)

37) 上揭書, p.2685. “腎居小腹之後 又在於下 此陰中之陰也 其道遠 其位僻 雖曰多血 氣運不到 血亦罕來 中年後不可生癰 纔有腫痛 參之脈證 但見虛弱 便與滋補氣血 可保終吉 若用尋常驅熱舒氣之藥 虛虛之禍 如指諸掌”(雜病篇 卷八 癰疽下門 腎癰)  
 38) 上揭書, p.2721. “凡癰疽 勿食羊鷄牛鵝魚麵煎炒法酒等味 犯之必發熱 蓋厚味能引起宿火之熱 此誠富貴參養口腹者所謹宜守 若冬寒與虛老人 寧無權法乎 略加滋味 以補胃氣 庶易收斂”(雜病篇 卷八 癰疽下門 調理及禁忌法)  
 39) 上揭書, p.853. “虛人藏冷而血脈枯 老人腸寒而氣道澁 此大腸之挾冷然

Table 3. 老人의 治療를 달리한 病症 및 處方 (外形篇)

門	病症	處方
頭	虛暈 <sup>51)</sup>	黑錫丹 <sup>52)53)</sup>
眼	老人眼昏 <sup>54)</sup>	還睛丸, 夜光育神丸, 明眼地黃丸, 陰地黃丸 呂仙翁方, 益氣聰明湯
	不能遠視不能近視 <sup>55)</sup>	地芝丸, 六味地黃丸 加牡蠣定志丸 加茯苓
耳	耳鳴 <sup>56)</sup>	補腎丸, 黃芪丸, 大補丸, 滋腎通氣湯, 六味地黃丸 以全蠍四十九枚 炒黃爲末
鼻	鼻勲 <sup>57)</sup>	獨頭蒜 四五箇
背	背偻 <sup>58)</sup>	補腎益精髓之劑
毛髮	鬚髮榮枯 <sup>59)</sup>	張天師草還丹, 延年益壽不老丹, 四物坎離丸, 秤金丹, 還元秋石丸, 仙烏雲丹, 却老烏鬚健陽丹, 七仙丹, 五老還童丹, 加味蒼朮膏, 一醉不老丹, 中山還童酒, 烏鬚酒二方

也 腹脹痛悶 胸痞欲嘔 此宿食留滯也 腸胃受風 潤燥秘澀 此風氣燥灼也 若氣不下降而穀道難 噎逆泛滿 必有其證矣 冷者半硫丸 大腸與肺爲表裏 大腸者 諸氣之道路關焉 孰知流行肺氣 爲治法之樞紐乎 “老人虛人風人 津液少而秘者 宜以藥澀之 用麻仁 脂麻阿膠等 是也 若妄以峻劑逐之則 津液走 氣血耗 雖暫通而復便秘 或更生他病矣” “老人虛人 宜潤腸丸 潤腸湯” (內景篇 卷四 大便門 大便不通)

- 40) 上揭書, p.850. “老人藏府秘澀 不可用大黃 緣老人津液少 所以秘澀 若服大黃以瀉之 津液皆去 定須再秘甚於前 只可服滋潤大腸之藥 更用槐花煎湯 淋洗肛門 亦效” “老人秘結 宜疏風順氣元 小皂角元 二仁元 橘杏丸 黃芪湯 膠蜜湯 蘇麻粥 三仁粥” (內景篇 卷四 大便門 老人秘結)
- 41) 上揭書, p.800. “老人脾腎虛泄 宜豬藏丸” (內景篇 卷四 大便門 腎泄)
- 42) 上揭書, p.798. “脾泄多老人腎虛 謂之水土同化 宜吳茱萸湯” “老人奉養太過 飲食傷脾 常常泄瀉 亦是脾泄 宜用山楂麴朮丸” (內景篇 卷四 大便門 脾泄)
- 43) 上揭書, p.761. “童兒精未盡而御女 老人陰已痿而思色 以降其精則精不出而內敗 莖中痛澀而爲淋 八味丸料 加車前子 牛膝 煎服” (內景篇 卷四 小便門 莖中痒痛)
- 44) 上揭書, p.731. “老人虛人 宜五子元 家韭子元 參芪湯” (內景篇 卷四 小便門 小便不禁)
- 45) 上揭書, p.722. “老人轉轉 困篤欲死 六味地黃丸 倍澤瀉 服之效” (內景篇 卷四 小便門 轉轉證)
- 46) 上揭書, p.720. “年老人 小便不通 多是氣短血虛 四物湯 加黃芪 煎水 吞下滋腎丸 空心” “老人氣虛 小便不通 四物湯 加黃芪 人參 吞下滋腎丸” “老人虛人 小便不通 琥珀末 以人參 赤茯苓煎湯調 空心 服” (內景篇 卷四 小便門 老虛人癱閉)
- 47) 上揭書, p.528. “虛人老人痰飲 宜竹瀝枳朮丸 霞天膏” (內景篇 卷二 痰飲門 痰飲通治藥)
- 48) 上揭書, p.456. “有氣血虛損者 有腎虛及老人忽言不出者 宜於十全大補湯 去桂 加菖蒲 遠志” (內景篇 卷二 言語門 瘖不得語)
- 49) 上揭書, p.397. “老人 六味地黃丸” (內景篇 卷二 血門 尿血)
- 50) 上揭書, p.335. “如年老善忘者 加減固本丹” (內景篇 卷一 神門 健忘)
- 51) 上揭書, p.1459. “內經曰 女子七歲 齒更髮長 五七 面始焦 髮始墮 六七 面焦 髮白 丈夫八歲 齒更髮長 五八 髮墮 齒枯 六八 面焦 髮白” “鬚髮在鬚 腎華在髮 精氣上升則鬚潤而黑 六八以後 精華不能上升 秋冬令行 金削肺枯 以致鬚髮焦枯如灰白色 養生者 宜預服補精血藥以防之 染掠亦非上策” “補養精血 變白髮 宜張天師草還丹 延年益壽不老丹 四物坎離丸 秤金丹 還元秋石丸 神仙烏雲丹 却老烏鬚健陽丹 七仙丹 五老還童丹 加味蒼朮膏 一醉不老丹 中山還童酒 烏鬚酒二方” (外形篇 卷四 毛髮門 鬚髮榮枯)
- 52) 黑錫丹은 東醫寶鑑에 處方내용이 收錄되어 있지 않아 醫學入門에서 인용하였다.
- 53) 명 · 이천 편저, 진주표 역해. 신대역편주 의학입문. 서울, 법민문화사, p.1916, 2009. “黑石熔去渣 硫黃熔化水浸 各二兩 卻將錫再溶化 漸入硫黃 候結成一片 傾地上去火毒 研至無聲爲度 此爲丹頭 入附子 古紙肉蕊 小茴 川練 陽起石 木香 沈香 葫蘆巴各一兩 肉桂五錢 爲末和勻 酒糊丸梧子大 陰乾 入布袋內擦令光熟 每三十九 空心薑鹽湯或棗湯下 婦人艾醋湯下 年高有客熱者 服之效 治脾胃虛 冷氣刺痛 止汗澀痰 除濕破癖 或加肉蓯蓉 牛膝 白朮 丁香 名接氣丹 治真元虛德”
- 54) 上揭書, p.1190. “老人偻 乃精髓不足而督脈虛也 宜用補腎益精髓之劑” (外形篇 卷二 背門 背偻)
- 55) 上揭書, p.1067. “老人鼻勲不止 用獨頭蒜 四五箇 搗爛貼脚底心 用紙貼之 勲自止” (外形篇 卷二 鼻門 鼻勲)
- 56) 上揭書, p.1036. “凡人嗜慾無節 勞役過度 或中年之後 大病之餘 腎水枯竭 陰火上炎 故耳痒耳鳴 無日而不作 或如蟬噪之聲 或如鐘鼓之聲 早而

Table 4. 老人의 治療를 달리한 病症 및 處方 (雜病篇)

門	病症	處方
風	卒中風救急 <sup>60)</sup>	省風湯, 防風通聖散
	中風虛證 <sup>61)</sup>	萬金湯, 八寶迴春湯
暑	夏暑將理法 <sup>62)</sup>	竹葉石膏湯 加附子
癰疽	癰疽煩渴 <sup>63)</sup>	加減八味元
	癰疽嘔逆 <sup>64)</sup>	參苓白朮膏

2) 病症 경향분석

東醫寶鑑 內景篇에서는 神門, 血門, 言語門, 痰飲門, 小便門, 大便門의 條文中에서 健忘, 尿血, 瘖不得語, 痰飲通治藥, 老虛人癱閉, 轉轉證, 小便不禁, 莖中痒痛, 脾泄, 腎泄, 老人秘結, 大便不通의 病症에서 老人 處方을 따로 설정하고 있으며, 外形篇에서는 頭門, 眼門, 耳門, 鼻門, 背門, 毛髮門의 條文中에서 虛暈, 老人眼昏, 不能近視不能遠視, 耳鳴, 鼻勲, 背偻, 鬚髮榮枯의 病症에서 老人 處方을 따로 설정하고 있으며, 雜病篇에서는 風門, 暑門, 癰疽門의 條文中에서 卒中風救急, 中風虛證, 夏暑將理法, 癰疽煩渴, 癰疽嘔逆의 病症에서 老人 處方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老因血衰와 老人治病의 條文中에서 언급되었던 老人病症의 大綱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Table 5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주로 內景篇과 外形篇을 중심으로 老人의 治療를 달리한 病症이 收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 收錄된 病症들은 內景篇 · 身形門 老因血衰의 條文과 老人治病의 條文中에서 제시하였던 老人의 대표적 病症인 九竅의 病症과 小便疾患, 大便疾患, 痰飲疾患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東醫寶鑑의 各 病症 내에서 老人의 治療를 달리한 病症은 身形門의 老因血衰와 老人治病의 條文中에서 제시되었던 老人病症의 大綱인 五臟精氣의 상태를 반영하

不治 漸至聾聵 良可嘆哉” “耳鳴 皆是腎精不足 陰虛火動也 痰火者鳴甚 腎虛者微鳴 宜補腎丸 黃芪丸 大補丸 滋腎通氣湯 或六味地黃丸 以全蠍四十九枚 炒黃爲末 每二錢 溫酒調和 吞下百丸” (外形篇 卷二 耳門 耳鳴)

- 57) 上揭書, p.1001. “能遠視不能近視者 陽氣有餘 陰氣不足也 乃血虛氣盛 氣盛者 火有餘也 能近視不能遠視者 陽氣不足 陰氣有餘 乃氣虛血盛也 血盛者 陰火有餘也 氣虛者 元氣衰弱也 此老人桑榆之象也” “目能遠視 責其有火 不能近視 責其無水 法當補腎 宜服地芝丸 或六味地黃丸 加牡蠣” “目能近視 責其有水 不能遠視 責其無火 法當補心 宜定志丸 加茯苓” “不能近視 晨服地黃丸 不能遠視 臥服定志丸” (外形篇 卷一 眼門 不能遠視不能近視)
- 58) 上揭書, p.999. “人年老而目昏者 血氣衰而肝葉薄膽汁減而目乃昏矣” “童子 水在上 故視明瞭 老人 火在上 故視昏睡” “老人眼昏 宜還睛丸 夜光育神丸 明眼地黃丸 滋陰地黃丸 呂仙翁方 勞傷昏暗 宜益氣聰明湯” (外形篇 卷一 眼門 老人眼昏)
- 59) 上揭書, p.891. “老人每早起眩暈 須與自定 此是陽虛 宜黑錫丹” (外形篇 卷一 頭門 虛暈)
- 60) 上揭書, p.2707. “若年老人 潰後嘔不能食 宜參苓白朮膏補之 河間謂瘡瘍嘔者 濕氣侵于胃也 宜倍白朮” (雜病篇 卷八 癰疽門 癰疽嘔逆)
- 61) 上揭書, p.2706. “加減八味元 治癰疽渴疾 首尾通用最佳 老人尤宜” (雜病篇 卷八 癰疽門 癰疽煩渴)
- 62) 上揭書, p.1990. “虛人及老人中暑 迷厥不省 宜竹葉石膏湯 加附子 冷服之” (雜病篇 卷三 暑門 夏暑將理法)
- 63) 上揭書, p.1766. “凡中風 年逾五旬 氣衰之際 多有此疾 壯年肥盛者 亦有之 亦是形盛氣衰而然也 宜用萬金湯 八寶迴春湯” (雜病篇 卷二 風門 中風虛證)
- 64) 上揭書, p.1740. “凡中風之證 多是老年因怒而成 蓋怒火上升 所以昏仆不省 痰涎壅盛 治宜豁痰瀉火 豁痰 宜省風湯 瀉火 宜防風通聖散” (雜病篇 卷二 風門 卒中風救急)

는 九竅의 病症과 小便, 大便 및 痰飲의 病症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상태에 이에 더하여 임상적으로 老人生理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病症을 추가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Table 5. 老人의 治療를 달리한 病症과 老因血衰 및 老人治病의 病症比較

	老人의 治療를 달리한 病症	老因血衰	老人治病
眼疾患	老人眼昏 不能近視不能遠視	啼哭無淚 笑反有淚	
鼻疾患	鼻鼾	鼻多濁涕	
耳疾患	耳鳴	耳作蟬鳴	
言語疾患	瘖不得語		
小便疾患	尿血 老虛人癱閉 轉脬證 小便不禁 莖中疼痛	溲尿自遺	小水短少 小便頻數
大便疾患	脾泄 腎泄 老人秘結 大便不通	便燥或泄	大便乾燥
痰飲疾患	痰飲通治藥		痰病
其他疾患	健忘	喫食口乾 寐則涎溢	病後虛弱
	虛暈	晝則多睡, 夜臥惺惺不眠	
	背偃僂		
	鬚髮榮枯		
	卒中風救急		
	中風虛證		
	夏暑將理法		
	癰疽煩渴		
	癰疽嘔逆		

### 3) 處方 경향분석

東醫寶鑑에는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65種의 處方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東醫寶鑑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의 各門에서 老人處方의 收錄與否와 收錄病症을 조사하고 病症別 收錄處方의 數에서 老人處方이 차지하는 數를 조사하여, 각 病症에 대한 전체 處方 數에서 老人處方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였다.

Table 6, 7, 8을 살펴보면, 먼저 內景篇에서는 神門, 血門, 言語門, 痰飲門, 小便門, 大便門에서 老人處方을 따로 설정하여 運用하고 있다. 神門에는 健忘의 病症에 收錄된 13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血門에는 尿血의 病症에 收錄된 16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言語門에는 瘖不得語의 病症에 收錄된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痰飲門에는 痰飲通治藥에 收錄된 14種의 處方 중 2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小便門에는 老虛人癱閉의 病症에 收錄된 3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고, 轉脬證의 病症에 收錄된 6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小便不禁의 病症에 收錄된 18種의 處方 중 3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莖中疼痛의 病症에 收錄된 9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大便門에는 脾泄의 病症에 收錄된 5種의 處方 중 2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고, 腎泄의 病症에 收錄된 9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老人秘結의 病症에 收錄된 8種의 處方을 모두 老

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大便不通의 病症에 收錄된 17種의 處方 중 3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外形篇에서는 頭門, 眼門, 耳門, 鼻門, 背門, 毛髮門에서 老人處方을 따로 설정하여 運用하고 있다. 頭門에는 虛暈의 病症에 收錄된 6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고, 眼門에는 老人眼昏의 病症에 收錄된 6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不能近視不能遠視의 病症에 收錄된 3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耳門에는 耳鳴의 病症에 收錄된 12種의 處方 중 5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고, 鼻門에는 鼻鼾의 病症에 收錄된 4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背門에는 背偃僂의 病症에 補腎益精髓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毛髮門에는 鬚髮榮枯의 病症에 收錄된 14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雜病篇에서는 風門, 暑門, 癰疽門에서 老人處方을 따로 설정하여 運用하고 있다. 風門에는 卒中風救急의 病症에 收錄된 11種의 處方 중 2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고, 中風虛證의 病症에 收錄된 2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暑門에는 夏暑將理法의 條文에 收錄된 2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Table 6. 病症別 收錄處方 數 老人處方의 數 (內景篇)

門	老人 處方 收錄 病症	病症別 收錄處方의 數	老人處方의 數
神	健忘	13	1
血	尿血	16	1
言語	瘖不得語	1	1
痰飲	痰飲通治藥	14	2
小便	老虛人癱閉	3	3
	轉脬證	6	1
	小便不禁	18	3
	莖中疼痛	9	1
大便	脾泄	5	2
	腎泄	9	1
	老人秘結	8	8
	大便不通	17	3
合計		119	27

Table 7. 病症別 收錄處方 數 老人處方의 數 (外形篇)

門	老人 處方 收錄 病症	病症別 收錄處方의 數	老人處方의 數
頭	虛暈	6	1
眼	老人眼昏	6	6
	不能遠視不能近視	3	3
耳	耳鳴	12	5
鼻	鼻鼾	4	1
背	背偃僂	1	1
毛髮	鬚髮榮枯	14	14
合計		46	31

Table 8. 病症別 收錄處方 數 老人處方의 數 (雜病篇)

門	老人 處方 收錄 病症	病症別 收錄處方의 數	老人處方의 數
風	卒中風救急	11	2
	中風虛證	2	2
暑	夏暑將理法	2	1
癰疽	癰疽煩渴	10	1
	癰疽嘔逆	5	1
合計		30	7

또한 癰疽門에는 癰疽煩渴의 病症에 收錄된 10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고, 癰疽嘔逆의 病症에 收錄된 5種의 處方 중 1種의 處方을 老人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주로 內景篇과 外形篇에 모두 58種의 處方이 收錄되어 收錄處方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癰閉, 秘結, 眼昏의 病症은 따로 項目을 분리하여 老人治療만을 위한 處方을 收錄하였고, 不能近視不能遠視, 背偻, 鬚髮榮枯, 中風虛證의 條文에서는 病症治療를 위한 處方이 모두 老人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술한 病症들은 老化라는 조건이 病症 발현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治療에 있어서 보다 老人의 生理의인 특성이 중시되어야 할 病症이라고 할 수 있다.

### 3. 東醫寶鑑에 나타난 老人病症과 老人生理의 연계성 考察

#### 1) 神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未濟에 따른 神의 病症은 心,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心血과 腎精이 虛損된 老人의 生理의 상태는 神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神과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健忘이다. 老人의 健忘은 心血과 腎精이 虛해져 神의 기능이 失調되고 骨髓로써 腦를 營養하지 못함을 老人健忘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加減固本丹을 老人健忘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2) 血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津液枯渴에 따른 血의 病症은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腎陰이 부족한 老人의 生理의 상태는 血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血과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尿血이다. 老人의 尿血은 腎陰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한 內熱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六味地黃丸을 老人尿血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3) 言語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未濟, 津液枯渴에 따른 言語의 病症은 肝, 心, 脾,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전반적인 五臟의 氣血이 衰弱한 老人의 生理의 상태는 言語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言語와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瘖不得語이다. 老人의 瘖不得語는 전반적인 五臟의 氣血이 衰弱해져 舌이 그 滋養을 받지 못하여 舌瘖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므로 十全大補湯에 開竅醒神의 效能이 있는 菖蒲와 遠志를 가한 處方을 老人瘖不得語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4) 痰飲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조정이상에 따른 痰飲의 病症은 脾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脾氣가 虛損된 老人의 生理의 상태는 痰飲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痰飲과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痰飲通治藥에 나타난다. 東醫寶鑑에서 痰飲의 治療法에 대해 말하기를, “脾土를 튼튼하게 하고, 脾濕을 마르게 해주는 것은 그 本을 治療하는 것이다.”<sup>65)</sup>라고 하여 痰飲의 治療는 脾의 기능 失調를

회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東醫寶鑑에서는 老人痰飲의 원인을 脾가 虛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竹瀝枳朮丸과 震天膏를 老人痰飲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小便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陽氣不足에 따른 小便의 病症은 肺, 腎, 膀胱, 三焦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肺, 腎, 膀胱, 三焦가 虛損된 老人의 生理의 상태는 小便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小便과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癰閉, 轉脬證, 小便不禁, 莖中痒痛이다. 老人의 癰閉는 肺, 腎, 膀胱의 虛損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여 四物湯에 黃芪만을 추가하거나 또는 黃芪와 人蔘을 추가하여 滋腎丸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肺, 腎, 膀胱의 水液代謝기능의 失調를 治療하는 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老人의 轉脬證은 腎의 水液代謝 기능의 失調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東醫寶鑑에서는 六味地黃丸에 澤瀉를 倍로 加한 處方을 老人 轉脬證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老人의 小便不禁은 腎膀胱의 下焦가 虛寒하고 肺氣가 虛한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腎膀胱의 下焦虛寒이 원인인 경우에는 五子元과 家韭子元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肺氣가 虛한 것이 원인일 경우에는 參芪湯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老人의 莖中痒痛은 腎陽과 腎陰이 모두 枯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消耗함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八味元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6) 大便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陽氣不足, 津液枯渴에 따른 大便의 病症은 脾,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脾陽과 腎陽 및 腎陰이 虛損된 老人의 生理의 상태는 大便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大便과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脾泄, 腎泄의 泄瀉와 老人秘結, 大便不通의 便秘이다. 東醫寶鑑에서는 老化로 인해 虛損된 脾陽과 腎陽의 정상기능을 회복시켜 脾泄과 腎泄을 治療하고자 吳茱萸湯과 豬藏丸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이 외에 지나친 奉養으로 인한 脾의 運化 失調에는 山楂麴朮丸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老人의 便秘는 腎陰과 腎陽이 虛損되어 津液이 不足하고 腸胃가 차가워져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津液不足으로 인한 便秘의 경우에는 疏風順氣元, 小皂角元, 二仁元, 橘杏丸, 黃芪湯, 膠蜜湯, 蘇麻粥, 三仁粥, 潤腸丸, 潤腸湯의 處方으로 津液不足의 상태를 개선시켜 便秘를 治療하고 아울러 식이요법으로써 젓기름, 선지국, 참기름을 꾸준히 복용할 것<sup>66)</sup>을 老人便秘에 대한 治療處方으로 설정하였으며, 老人의 腸胃가 차서 便秘가 오는 경우에는 半硫丸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7) 頭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未濟, 水火조정이상에 따른 頭의 病症은 脾,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脾陽과 腎陽

治法)

66) 上揭書, p.850. “常食乳酪 血脂 麻汁爲妙”(內景篇 卷四 大便門 老人秘結)

65) 上揭書, p.525. “實脾土 燥脾濕 是治基本”(內景篇 卷二 痰飲門 痰飲

이 虛損된 老人의 生理的 상태는 頭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頭와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虛暈이다. 老人의 眩暈은 脾胃의 陽氣가 虛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黑錫丹을 老人眩暈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8) 目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未濟, 水火조절이상에 따른 目的 病症은 脾, 心,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脾氣와 心神, 腎精이 虛損된 老人의 生理的 상태는 目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目과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老人眼昏과 不能遠視不能近視이다. 老人의 眼昏과 不能遠視不能近視는 腎精과 心神이 虛損된 것으로 파악하고 還睛丸, 夜光育神丸, 明眼地黃丸, 滋陰地黃丸, 地芝丸, 六味地黃丸 加牡蠣의 處方을 腎精을 補하는 處方으로 설정하고, 定志丸 加茯苓의 處方을 心火를 다스리고 心神을 안정시키는 處方으로 설정하며, 이 외에도 益氣聰明湯을 過勞로 손상된 脾氣를 補하여 老人의 眼疾患을 治療하기 위한 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9) 耳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未濟, 津液枯渴에 따른 耳의 病症은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腎精이 虛損된 老人의 生理的 상태는 耳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耳와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耳鳴이다. 老人의 耳鳴은 腎精이 부족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補腎丸, 黃芪丸, 大補丸, 滋腎通氣湯, 六味地黃丸, 加全蝎의 處方을 老人耳鳴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10) 鼻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未濟, 津液枯渴에 따른 鼻의 病症은 肺와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肺가 차가워진 老人의 生理的 상태는 鼻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鼻와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鼻鼽이다. 老人의 鼻鼽症은 腎陽이 虛損되어 肺寒의 病理가 유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마늘을 脚底心에 붙이는 것을 老人鼻鼽症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sup>67)</sup>.

#### 11) 背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津液枯渴에 따른 背의 病症은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腎精이 虛損된 老人의 生理적 상태는 背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背와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背僂倮이다. 老人의 背僂倮는 腎의 藏精生水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骨에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파악하고 補腎하고 益精髓하는 處方을 老人 背僂倮의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12) 毛髮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陽氣不足에 따른 毛髮의 病症은 肝,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肝, 腎의 精血이 虛損된 老人의 生理的 상태는 髮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毛髮과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毛髮榮枯이다. 老人의 毛髮榮枯는 肝腎精血의 虛損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張天師草還丹, 延年益壽不老丹, 四物坎离丸, 秤金丹, 還元秋石丸, 神仙烏雲丹, 却老烏鬚健陽丹, 七仙丹, 五老還童丹, 加味蒼朮膏, 一醉不老丹, 中山還童酒, 烏鬚酒 二方의 處方을 머리카락이 희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13) 風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조절이상에 따른 風의 病症은 肝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또한 五十歲가 지나 氣가 衰弱해졌을 때 많이 생긴다고 하였다. 肝火가 易動하고 氣가 衰한 老人의 生理的 상태는 中風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風과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卒中風救急과 中風虛證이다. 老人의 卒中風救急은 肝火가 쉽게 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省風湯과 防風通聖散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中風虛證은 氣가 衰한 것으로 파악하고 萬金湯과 八寶廻春湯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14) 暑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陽氣不足에 따른 暑의 病症은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腎氣가 虛損된 老人의 生理的 상태는 暑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暑와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夏暑將理法에 나타난다. 東醫寶鑑에서는 暑熱을 淸解하고 枯竭된 腎氣를 推動하여 老人暑病을 治療하고자 竹葉石膏湯에 附子를 加한 處方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15) 癰疽門 病症과 老人生理

老人은 腎氣가 枯渴된 상태로 水火未濟, 水火조절이상에 따른 癰疽의 病症은 脾, 腎의 生理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脾氣가 虛하고, 腎陰이 虛損된 老人의 生理的 상태는 癰疽로 인한 二次的 病症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니, 이에 東醫寶鑑에서 癰疽와 관련된 病症 중에 老人의 治療를 따로 설정한 것은 癰疽煩渴과 癰疽嘔逆이다. 老人의 癰疽煩渴은 腎陰이 虛한 狀態에 癰疽의 熱毒이 가중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腎陰을 補하기 위해 加減八味元을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또한 癰疽嘔逆의 증상을 脾의 運化기능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三苓白朮膏<sup>68)</sup>를 治療處方으로 설정하고 있다.

## 결론

東醫寶鑑에 나타난 老人病症이 담고 있는 이론기반을 찾기 위해 東醫寶鑑 老人病症 治療내용을 발췌하여 東醫寶鑑 老人生理내용과의 연계성에 대해 분석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老人의 生理 狀態는 五臟의 精氣가 衰함으로 인해 臟腑와 그와 연관된 五官, 五體의 生理 기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腎에 精氣를 공급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腎氣(精血)가 枯渴된 狀態

67) 脚底心은 足少陰腎經의 湧泉穴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足少陰腎經은 腎에 屬하고 膀胱을 絡하지만, 그 經絡流注上 腎에서부터 나와 肝과 橫隔膜을 올라가 肺로 들어가는 循行路線을 취한다.

68) 東醫寶鑑에는 三苓白朮膏의 處方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확한 處方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와 處方名이 비슷한 三苓白朮丸, 蓼苓白朮散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處方의 효능을 추측할 수 있다.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五臟 精氣의 상태가 가장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病症을 老人病症의 大綱으로 삼아 五臟의 精氣를 훼손시킬 수 있는 汗吐下와 같은 治法이 아닌 성질이 順하고 甘溫한 藥을 사용하는 補法을 위주로 老人病症을 治療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24種의 病症과 65種의 處方에 걸쳐 老人의 治療를 달리 구분하고 있는데, 病症의 경우 五臟 精氣의 상태를 반영하는 九竅와 小便, 大便 및 痰飲부분과 임상적으로 老人生理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病症門에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處方의 경우 주로 內景篇과 外形篇에 집중적으로 收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 나타난 老人의 生理 상태와 治療 원칙에 의거하여 설정된 24種의 病症과 65種의 處方에 나타난 老人治療의 특수성을 生理學的으로 考察한 결과 각각의 病症은 腎氣가 枯渴되어 나타나는 水火未濟, 津液枯渴, 水火조정이상, 陽氣不足, 水火 조절이상의 生理的 상태에 따라 肝火內動, 津液不足, 腎陰內熱, 心神虛損, 腎陽不足, 脾失健運, 脾陽不足, 肺氣虛寒의 구도를 중심으로 老人의 病症을 치료하기 위한 處方이 운용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귀분 외. 노인질환관리 I. 서울, 현문사, 2006.
2. 김은기, 성우용, 송경섭. 老化防止를 위한 韓醫學의 方法. 대한한방성인병학회지 2(1), 1996.
3. 전국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改訂版 東醫生理學. 파주 시, 集文堂, 2008.
4. 안상원. 숙지황과 육미지황탕이 노화과정 흰 쥐에서의 항산화 기전에 미치는 영향. 大田大 博士論文, 1999.
5. 윤혜상. 노인간호학. 서울, 청구문화사, 2006.
6. 권인순. 노화의 정의 및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50(3), 2007.
7. 백상룡. 老化에 대한 研究(黃帝內經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2(2), 1999.
8. 박금화, 최연희, 남철현.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한 건강 만족도와 관련 영향 요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2(3), 2008.
9. 윤철호. 『노노항언(老老恒言)』에 나타난 노인의 소화기 계통 양생법(1)-비위기(脾胃器)계통의 양생법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 2010.
10. 이강호, 금동호, 이명중. 氣功을 통한 老人保健의 研究.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1(1), 2001.
11. 이 화. 노인보건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大田大 博士論文, 2001.
12. 정채빈. 老人健康에 對한 東西醫學의 比較 考察. 圓光大 碩士論文, 1999.
13. 하재원 외. 노인 중양의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암한의학회지 9(1), 2003.
14. 송미령, 윤창렬. 노인치매의 治療에 關한 韓醫學的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6(1), 1997.
15. 곽익훈, 김중대, 정지천. 老人 低血壓에 對한 文獻의 考察.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4, 1995.
16. 허 준 저,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신편 ·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5.
17. 石山淳一. 중의학의 노화개념. 의림, 1988.
18. 권건혁 편집. 編輯 黃帝內經.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0.
19. 명 이천 편저, 진주표 역해. 신대역편주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